

천성산에 흘러내린 땀과 눈물

지울, 숲에서 나온다

지울 스님 지음 / 8천5백원



부처님은 숲에서 태어나 숲에서 깨달음을 얻고 제자들을 가르치다 숲에서 열반에 들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서원한 제자들 역시 숲 속에 집을 짓고 정진해왔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제자 지울 스님은 왜 '숲을 나온' 것일까?

"처음에는 모두가 땅을 파헤치고 가만히 두지 않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산을 아픔에 울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좌회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문제 제기를 제기하며 38일과 45일에 걸친 두 차례 단식기도를 한 스님,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도롱뇽을 법정에 세운 스님, 내원사 산감(山監)



2004년 봄, 천성산 벌목 현장에서 지울 스님은 자연 파괴의 현장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고속철 관통저지 단식일지·생명철학과 도롱뇽 친구들이 보낸 그림엽서 답아

지울 스님이 지키려 하는 산은 바로 천성산이다.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이 4km가 넘는 행정 구역 12곳, 회귀고층 습지 22곳, 법정보호동식물 30여 종 이상을 품고 있는 도립공원 천성산 말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994년 고속철도공단이 제출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야생 동식물은 없

음'이라는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관통허가를 내주었다. 이것이 스님이 숲을 나서게 된 시작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 시작은 '개발'이라는 용어에 울음소리에 귀기울임'으로써 생명을 잃고 죽어 가고 있는 산과 강과 하늘을 마음의 풀로 옮길 수 있고, 스스로 그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밖에 초등학생과 농부, 교수, 수녀, 시인 등 천성산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의 소중함에 눈감아 버린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숲을 나온 스님은 지난 한 해를 모두 천성산 살리기를 위해 쏟아 부었다. <지울, 숲에서 나온다>는 그 치열했던 일 년 간의 기록이다. 책의 1부는 두 번째 단식기도 중에 스님이 쓴 '단식일지'다. "이 무상한 육신을 버려 천성(千聖)의 많은 생명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저갯거리에 나가 몸과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천성의 품을 떠나며) "산을 떠나 오기 전 상처 입은 인연으로 만난/ 소쩍새 세끼를 놓아 주면서/ 약속했습니다/이 다음에 내가 자라서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도록/ 천성의 숲을 지켜 줄게 하고/ (마흔다섯째 날 '희망' 버릴 수 없는 아픔)"

2부 '초록의 공명'에는 천성산 홈페이지(www.cheonsung.com)에 올린 스님의 글과 사진이 실려 있다. 스님은 '작은 풀의 안부'를 묻고, '풀벌레 울음소리에 귀기울임'으로써 생명을 잃고 죽어 가고 있는 산과 강과 하늘을 마음의 풀로 옮길 수 있고, 스스로 그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밖에 초등학생과 농부, 교수, 수녀, 시인 등 천성산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의 소중함에 눈감아 버린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교미술은 왜?

한국 불교미술 연구

장종식 지음 / 3만5천원



불교미술사학계의 원로인 장종식(63)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가 30여 년에 걸친 학문 활동을 모은 단행본 <한국 불교미술 연구>를 냈다. 책에 수록된 글은 그동안 발표한 한국불교미술 관련 전문 논문 50여 편 중 20편을 1차로 선정한 것이다.

책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한국 불교미술 각 분야에 관한 논문을 조각과 석조건축, 회화, 공예를 비롯해 사경(寫經), 금석문 등의 6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20편의 논문은 각기 하나의 완전한 글로 쓰여 졌지만 책에서는 '불교미술'이란 큰

30년간 쓴 연구논문 50편 중 조선후기까지 20편 엮어 의문점 해결 과정 '눈길'

데투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형성한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논문을 집필할 당시에는 각각의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 하나의 연관 속에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불교미술이 지닌 융합성에서 이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1장 '불교조각: 오랜 물음에 대해'에서는 1963년 7월16일 경남 의령군 대의면 하촌리에서 발견된 '연가7년명(延嘉七年銘) 금동불상'의 명문(銘文) 판독 오류를 지적하며 제작 연대인 '기미년'을 기존의 479년이 아닌 539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장 '석조건축: 건축의장의 재해석'에서는 석조계단의 성격과 기능을 살펴, 1972년 해체 복원된 경북 선산 죽장사 모전석탑(국보 130호)이 잘못 복원됐음을 지적한다.

이 밖에도 경남 산성군 해평면 도리사 금동사리구(국보 제208호)가 공개되기까지 과정과 최근 김천에서 출토된 미륵암 시장군비(柴將軍碑)의 주인공인 시장군이 삼국통일 전쟁에 당군 일원으로 참여한 당나라 장군임을 밝히고 있다. 여수령 기자

본래 佛로 가는 길 열려요

법화경 해설서 낸 임채수 씨



산은 흐르고 물은 서 있네

임채수 역해 우리출판사 / 9천원

"부처님 진리의 요체를 담고 있는 <법화경>을 통해 불(佛)의 진면목을 바로 알고 불의 여여한 경지를 이루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임채수 법화사상연구소 소장 (69·부산불교신도회 고문·사진)

은 최근 <법화경> 해설서 <산은 흐르고 물은 서 있네>를 펴내며 이렇게 밝혔다. '희장(喜藏)이 쓴 법화경 실상세계'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20여 년 동안 <법화경> 연구에 바친 임 소장의 삶과 원력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법화경>으로 인해 정법을 만났고, 삶의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찾게 됐다"고 밝힌 임 소장은 '법화경 강의'로 더욱 유명하다. 김해교도소 수인들을 위해 6년째 이어온 강의는 물론 1년 6개월 동안 70회에 걸쳐 <법화경> 28품을 모두 강의하기도 했다. 강의 회향 후 강의 내용 녹음테이프 신청이 줄을 이었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책이 나오자마자 전국의 도서관, 교구본사, 강원, 동국대 등에 법보시를 하며 책 출간의 의미를 더하고 있는 임 소장은 "법화경의 일승사상을 이해하면 중생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본래 불로 되돌아가는 길이 열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다 깊이 있는 불교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을 위한 바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한 임 소장은 "조만간 일 본판도 출간할 예정이며 책과 강연으로 포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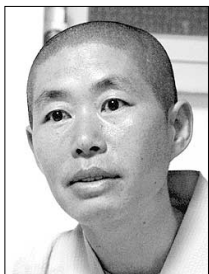
'개발'에 밀려 사라질 '생명' 잊지 마세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천성산의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해 걸어온 생명운동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지울, 숲을 나온다>를 펴낸 지울 스님(사진)은 책을 통해 또 한번의 생명운동을 하려 한다. 출간을 앞설었던 스님은 "책을 읽고 천성산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 하나로

책을 펴낼 용기를 냈다. 하지만 책을 펴낸 시점이 도롱뇽 소송 법원 판결을 코앞에 둔 데다, 천성산 자락의 벌목이 시작된 직후라 마음이 무겁다. '벌목 현장에 앉아 쓰러져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 살려달라고 했던 천성산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는 스님은 살려주겠다고 했던 첫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을 통한 투쟁'을 얘기한다. 투쟁이라는

다소 낯선 단어 뒤에 스님의 절박한 심경이 묻어난다. 요즘 스님에겐 책을 읽는 사람들의 관심과 의지가 천성산을 살리는 대중의 힘으로 결집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도롱뇽의 친구가 되어주었듯, 책을 읽으며 개발의 이름으로 사라져갈 많은 생명들을 한번쯤 떠올리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 천성산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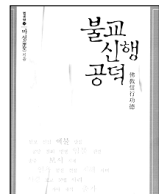


을 떠나는 나의 얘기가 많은 이들을 자연의 품으로 복귀시키는 힘이 되길 바란다"는 스님은 4월 9일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불교신행공덕

마성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 5천원



내게 맞는 신행법 찾아보자

신행을 돕기 위한 책 <불교신행공덕>을 펴냈다. 지난 2001년부터 2년간 월간 <불광>에 연재했던 원고들을 보충해 책으로 엮은 스님은 "이 책

은 자신의 믿음과 실천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나침반"이라고 말한다. 책에서는 예불, 공양, 참회, 염불, 보

시, 채식 등 25가지 신행의 공덕을 소개하며 불교를 믿고 따르면 어떤 공덕이 있는지, 나에게 맞는 신행법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별의미 없이 행했던 의식은 물론 '이런 것에도 공덕이 있을까' 하고 간파하고 있었던 다양한 불교신행법과 그 공덕을 자세히 소개한다. 여수령 기자

마산 가야사 주지 마성 스님(팔리 문헌연구소장)이 불자들의 올바른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백일문	성형 스님	장경각
2	아! 붓다	탁 낮 한	반디미디어
3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림
4	불교의 이해와 실행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5	수행의 단계	법라이 라마	들녘
6	대승입문가경 외	동국역행원	동국역행원
7	법상에 도가 있다	정세 채 모	책
8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 스님	시공사
9	회두참선	이계득	우리출판사
10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립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도서 안내: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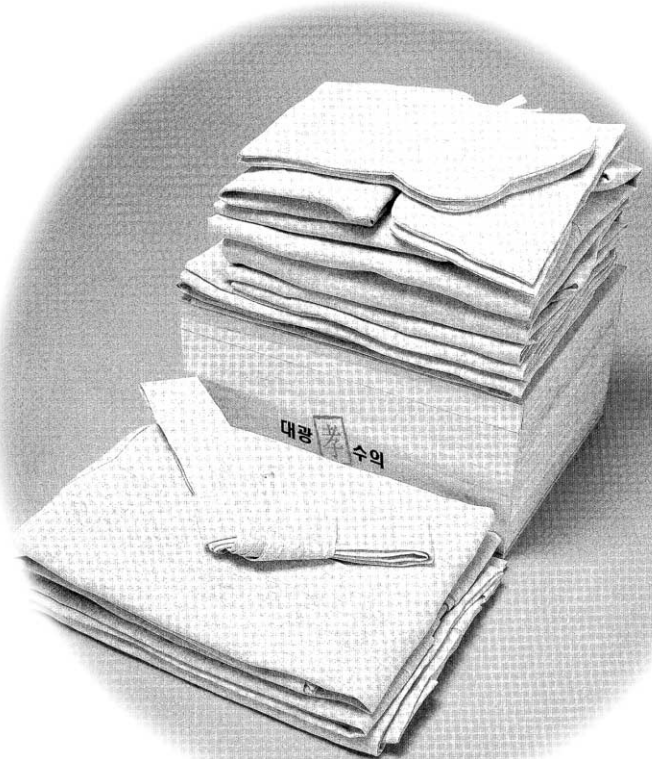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역시아문 전화: (02)737-0695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孝]수의로 하세요

갑신년 윤달 수의 특별가로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대광[孝]수의를 구입하시는 모든분께
성묘용 제기세트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수의 가격표

상품명	재질(성분)	원사가공지	판매가격
국화1호	삼베100%	경북안동지역	1,515,000
국화2호	삼베100%	강원일부지역	1,395,000
국화5호	삼베100%	경남해지방	1,249,000
국화7호	삼베100%	충남서천·홍성지방	950,000
특 1호	삼베100%	중국	670,000
보성삼베	대마+저마	전남보성지방	1,450,000
남해삼베	삼베100%	경북남해지방	2,345,000
안동삼베	삼베100%	경북안동지방	4,300,000

윤달 3월 21~4월 20일 원하시는 날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 주문 받습니다.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Q마크 획득



세시풍속(歲時風俗)

윤달(閏月)은 계절없이 무난하게 어기고 모든일을 거러김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더므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 풍속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대,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성이 얼마남지 않은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성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진다.

대광[孝]윤년수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 (1)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유있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혼합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고가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윤년 윤달에 "대광"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상 큰일을 당하여 급한 나머지 아무 수의나 임해드린 후 후두고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 (2) 고품질의 수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큰일을 당하여 경황없는 중에 저가품의 수의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시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은 현재 유통의 문제점입니다.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저렴한 시기 윤달에 구입하시는 것은 이런점들을 고려해 볼때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 (3) 금번 윤년 "대광상사"에서는 좋은 삼베만을 골라 환한환한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맞춤 바느질한 제품을 그동안 대광 삼베를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불자님 여러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 (4) 수의의 옷감은 자연섬유로만 사용해야야 매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년만에 윤달이 가장 좋은 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길년에 효도하시고 고품질에 수의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두가지의 행운을 함께 하십시오.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시는 불자님에게는 오동나무 상자를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02)2275-8075, 2279-7450 FAX. 02)2272-6715